

광주시교육감 후보 주요 공약 점검

범례	캐치프레이즈 학력
이름(나이)	주요경력

장휘국 “청렴·혁신교육 정착”

**장휘국 후보**

**청렴한 진보교육감**

조선대학교원 사학과

광주시교육감  
광주고 교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진보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캐치프레이즈도 ‘청렴한 진보교육감’이다.

그는 지난 4년간의 노력으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청렴과 혁신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주요 공약도 청렴과 혁신, 교육복지로 요약된다.

장 후보는 ▲청렴한 교직사회 정착 ▲안전한 학교 조성 ▲배움 중심의 혁신교육 정착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민주 시민교육 강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열린 정책 구현 ▲교육가족 공동체 형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청렴한 교직사회 정착을 위해 실시간 청렴도를 확인하는 ‘청렴신호등’을 운영, 공개할 방침이다. 또 윈스트라이크

아우제, 교육비리신고자 포상, 청렴시민 감사관제 등을 운영해 청렴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안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맘(Mom)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게 목표다. 그는 “즐거운 수학여행이 어른들의 욕심과 권력의 무능력·무책임 때문에 슬픈 여행이 됐다”며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 4년의 성과로 꼽는 희망교실은 더욱 확대한다. 희망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사제시간을 넘어 인생을 이끌어주는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여기에 지역사회도 동참해 교육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장 후보는 2일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거깝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기 위해 버스·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만나는 ‘경청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는 “4년 전 광주교육감으로 만들어준 것은 오로지 광주 교육의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이었다”며 “지난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청렴 정책·교육개혁·보편적 교육복지 등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양형일 “안전·실력향상 주력”

**양형일 후보**

준비된 교육감

미 주립휴스턴대 행정학박사

조선대 총장  
17대 국회의원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준비된 교육감’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대 총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의 지난 4년간의 실정을 꼬집으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안전과 실력, 교육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 ▲안전제일 교육환경 구축 ▲무상 통학·무상 방과후·무상 유치원 등 교육복지 강화 ▲실력광주 명예회복 ▲빛고을스마트교육관 건립 및 시스템 구축 ▲1000억원 규모 빛고를 교육재단 설립 ▲교과서 두 벌로 책가방 무게 줄이기 등을 내놓았다.

양 후보는 “광주에서 농약 성분이 함유된 ‘가짜 친환경쌀’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고, 일반김치가 친환경김치로 둔갑해 제공되는 등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한 정황이 있다”며 “광주시교육청과 상대후보는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 먹거리’와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희망교육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건강과 안전, 실력과 인성, 재능과 진로·진학 서비스, 예·체능 및 평생교육, 광주교육의 위상, 교육재정과 교육편의시설, 교육공무원과 방과후강사 처우, 유·초·중·고교, 보편적 교육복지, 대학 진학률 등을 올리고, 사교육비와 교복비, 등·하교 교통비, 친환경급식비, 저소득층 기숙사비, 자살률, 학교폭력 등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양 후보는 2일 시청·막자골목·지하철역 등 구석구석을 누비며 ‘무박 3일 72시간 민심대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대후보에 맞서 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진짜 친환경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고 무상 등·하교, 무상 방과후 학교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기초단체장·지방의원

노희용 “무등산 문화권 상설협의 기구 결성”

노희용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2일 산수·1·2동, 자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무등산 문화권 상설 협의기구를 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북구와 경합중인 ‘생태탐방체협관’을 반드시 동구에 유지하겠다”면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방송·통신탑 통합, 교통약자를 위한 무등산 산악버스(친환경 전기차)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선기 “북구 발전 위한 공약 반드시 실천”

진선기 무소속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2일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 월급 전액 복지에 환원, 용봉IC진입로 1년내 개통, KTX 광주역 진입 및 예세권 개발, 저소득층 아파트 복도 창호 지원, 31사단 이전 후 쾌적한 녹색공원조성, 일자리 2만개 창출 등 7대 공약, 2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면서 “공약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충훈 “도심~순천만 연결 수목터널 조성”

조충훈 무소속 순천시청 후보는 2일 “순천만 정원과 도시를 건너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수목터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수목터널은 순천만 정원에서 장대공원까지 하천둑을 활용해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순천만 정원~풍덕동~장대공원 구간을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임호경 “화순유통 문제, 주민 피해 최소화”

임호경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는 2일 “군민 출자자 4800여명을 비롯한 7만 군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화순유통 문제에 대해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닌 후보는 임호경 뿐이라는 군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임호경만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이를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난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통해 재확인됐다”며 승리를 확인했다.



김영호 “동구 도심 공동화 반드시 극복”

김영호 무소속 광주 동구 시의원(제2선거구) 후보는 2일 “국비, 시비, 민자 유치 등으로 동구 일대의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돌아오는 동구’의 꿈을 실현하겠다”며 “특히 동구 출신 전직 구·시의원 모임인 ‘동구 의정회’에서 저에게 보내준 절대적 지지의 힘을 기반으로 동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종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

채종순 무소속 광주 광산구 시의원(제3선거구) 후보는 2일 “신가동 재개발사업 지역에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채 후보는 “신가동 구 주택지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신가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선수촌 유치를 통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왕복 “학교협동조합 설립”

**김왕복 후보**

더 유능한 대안교육감

성균관대학교원 행정학박사

조선이공대 총장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김왕복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캐치프레이즈로 ‘더 유능한 대안교육감’을 내걸었다. 편 가르지 않는 중용과 통합의 리더십, 교육부에서 인정받은 기획력과 추진력, 대학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경륜과 안목 등을 갖춘 자신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아침밥 챙겨주는 학교 ▲학교협동조합 설립 ▲맞춤형 진로·직선교육 실현 ▲평등 기숙학당 운영 ▲초빙형 교장공모제 시행 ▲인사위원회 완전 독립 등 10대 참 공약을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과 조선이공대 총장을 역임한 그는 차별과 인권침해 없는 학교, 안전사고와 질병 없는 학교, 사교육비 없애는 으뜸 공교육, 이념갈등 없는 화합의 공동체, 측근 전횡 없는 광주교육청 등 ‘광주교육 바로세우기 5무(無) 선언’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일 윤봉근 후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선량한 경쟁과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정책 공조 등을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윤봉근 “실력·인성 함께 신장”

**윤봉근 후보**

새교육·시민교육감

조선대학교원 행정학박사

광주시 교육위원회 의장  
광주시의회 의장

윤봉근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새교육·시민교육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광주 시교육위원회 의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 후보는 “광주교육은 실력과 인성이라는 쌍둥이마차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학생에게 용기를 북돋고 꿈을 키워주는 알찬 광주교육 실현’을 목표로 ▲창의·혁신교육으로 실력광주 ▲존중과 배려로 예절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규범과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투명행정 ▲광주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개인별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등 ‘용·꿈 5대 핵심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교육전문가인 퇴직 교장·교감·장학사를 통한 협력단체인 신설, 스마트교육 혁신센터 설립, 토·도·토론 및 논술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실력광주의 명예회복을 자신하고 있다. 또 효사랑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인문교육 활성화, 학교문화관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교육감 직속으로 원-스톱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영수 “학력, 끌어올리겠다”

**김영수 후보**

학생을 위한 교육감

조선대학교원 박사과정 재적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삼도초교 교장

김영수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학생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떨어진 학력, 확 끌어 올리겠습니다’고 밝힌 정도로 실력광주를 주안점으로 내걸고 있다.

핵심 공약으로 ▲수업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 ▲재능기부센터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대폭 경감 ▲인성교육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광주교육은 학력 하락과 인재 유출로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매년 200여명씩 외지로 빠져나가고, 2000여 명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광주시교육청 장학사와 삼도초교 교장 등을 지낸 경험으로 단 기간에 성적을 확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선생과 교육시설은 우수한데 학력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수업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수업을 공개해 교수법을 개발하고 평가지원센터를 세워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복안을 내놨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그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그송  
선거차량  
UCC로그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 빛 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드림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김 스타 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혁신도시 토지, 상가, 아파트  
주변토지 다량보유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NAVER **단비플라워** 등려보이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